

명랑대첩의 감동 현장에서 느껴보세요

9월 2~4일 해남 우수영·울돌목 일원서 명랑대첩축제 선박 131척 전투 재현...해상 퍼레이드·학술 심포지엄

2016 명랑대첩축제가 9월 2~4일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등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명랑대첩 해전재현은 울돌목 바다에서 9월 3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진행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1척의 어선이 참여해 명랑해전 당시와 같은 규모의 해상전투를 재현, 더욱 생생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전투를 전후해 진도대교에서 시작하는 출정 퍼레이드 '구국의 행렬'과

출정식,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상황극이 하나의 테마로 이어져 수변 무대에서 펼쳐진다.

해군 3함대 구축함과 헬기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 퍼레이드와 평화의 만가행진, 온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판파라 이순신 등 주제행사를 비롯한 전라우수영 수문장 교대식, 조선 저잣거리 상황극, 울돌목 해상 풍물 뱃놀이, 우수영 용접이 놀이 등 명랑대첩을 주제로 한 공연도 대규모로 진행된다. 축제 이튿날인 3일에는 '명랑바다의 비밀과 이순신'을 주제로 학술 심포

지엄도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의 특별강연에 이어 누리안호 탐사선이 명랑바다갯벌에서 실시한 수중발굴의 의미를 조명하는 등 명랑바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연구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5대손 이봉상 충장병사가 기록한 '이충무공전' 한글본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며, 그동안 알려지 않았던 이순신의 행적과 명랑대첩 상황이 한글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가족단위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네모선장과 슈퍼히어로 공연을 비롯한 맨손 고기잡이체험, 판옥선 만들기 체험, 갑옷·투구 만들기 체험, 칼·활 만들기 체험, 조선시대 저잣거리 체험, 명랑대첩을 소재로 한 어린이 인형극장 등이 운영된다.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는 처음으로 상표 등록을 마친 '명랑의 고뇌하는 이순신상'과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마을로 변화하고 있는 '우수영 문화마을'도 축제의장터의 또 다른 볼거리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전재현 등 다른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축제의 즐거움은 물론 역사문화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 농기계기동수리반이 가을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양수기 등을 수리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가뭄극복 농기계 기동수리반 운영

진도군이 가뭄 대책으로 양수기 등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운영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운영중인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 공직자와 농기계수리요원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농기계기동수리반은 가뭄이 심각한

지역 내에서 가뭄 대책용 양수기 등 농기계 보유 농가를 직접 방문해 수리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동양수기와 양수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는 엔진, 경운기 등은 정비 수리와 함께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신기한 미로숲 체험, 해남서 즐기세요

두륜미로파크 9월 18일까지 무료 임시 개방

해남 두륜미로파크가 오는 10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임시개방 행사를 진행해 큰 인기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미로파크 임시 개방은 오는 9월 18일까지이며, 임시 개방 기간 동안 휴관일 없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광객은 물론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등을 초청해 관람 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사용 불편사항과 기능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두륜미로파크는 4039㎡의 규모의 야외미로공원을 비롯한 미로전시관 및 미로체험관으로 구성된 전시동이 들어서 있다.

총 길이 417m의 야외미로공원에는 서양측백나무와 전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한 미로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공원 내에는 조형물, 다동이, 영롱이 등 각종 캐릭터 조형물과 전망대 등도 설치됐다.

실내 전시동은 미로의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미로역사관과 거울로 만든 미로숲, 공룡어드벤처, 해남 도술암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된 미로체험관을 배치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미로공원이 정식 개장하면 대도시권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시개방 기간 동안 보완점을 파악해 해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조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두륜미로파크를 찾은 가족 관광객들이 미로체험을 하고 있다.

진도군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면적 대폭 확대

유채·메밀밭 등 40개 지구...465ha 늘려 1365ha 확정

진도군이 경관보전직불제 면적을 대폭 확대한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7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 면적을 올해보다 465ha 증가한 1365ha로 확정하고, 2017년도 국비에 산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재배 농업인도 320명에서 6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추진위원장, 재배농민, 읍면담당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진도군은 회의에서 사업시행 추진절차, 보조금 지급, 마을활동비 사용기준 등의 사업 지침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함께 경관직불제 재배가 가능한 작물, 이행점검 기간 등을 설명했다.

진도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진도군 지산면 소포마을(판타스틱

코리아 지구 회화전), 의신면 영산마을, 군내면 녹진마을(명랑대첩축제) 등이 유채, 메밀 꽃밭으로 경관 보전되면서 이와 연계한 다채로운 축제개최 등을 통해 농업소득 창출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목적에 맞게 관광지와 국도변 주변 대상지에 집단화가 이뤄진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 군민행복민원실 농번기철 야간 운영 호평

진도군이 제공하는 군민행복민원실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농번기로 바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군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은 군민행복민원실 시행 2개월 동안 31건의 민원접수를 처리했다.

특히 토요상향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장구 운영을 통해 민원상담 안내와 각종 증명서 발급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천연기념물 진도개 관광 기념품 개발

진도군이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활용한 인형, 메모꽂이, 손수건 등 상품화에 나선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6 문화콘텐츠 상품개발과 보급 공모 사업에 진도개 캐릭터 관광기념품 개발·보급 사업이 최종 선정돼 1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진도군과 (주)에담공방이 공동으로 참여 응모했으며, 지역 특성의 적절도와 상품의 실용성, 파급 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군은 진도개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올해 말까지 상품을 개발한 계획이다.

특히 진도개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메모꽂이, 손수건 등 총 3종의 상품을 집중 개발, 특허출원 후 내년부터 진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중 개발, 특허출원 후 내년부터 진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완도군 모든 주민에 여객선 운임 지원

완도군은 "9월 1일부터 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모든 완도군민이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 중 20%를 지원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섬에 사는 도서민에게만 여객선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완도읍과 군외면, 신지면 주민은 제외했다.

완도군은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완도군의회 정관법 의원 대표발의로 '완도군 제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군비 2억 6500만원을 들여 '제도권(섬이 아닌 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완료했다.

제도권 여객선 운임지원은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군에서는 2만6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곡성, 농가 전원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8천만원, 매매 52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20층, 76평, 즉시 입주가능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감정 / 시세 3억, 전매 최고 ■ 매매 - 1억 7천만 ■ 급매 (9월 5일까지) 	금호동, 근린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 감정 / 시세 7억, 모든 업종 오픈가능 ■ 매매 - 4억 6천만원 ■ 급매 (9월 5일까지) 	청풍동,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청풍동 산272번지 ■ 2339평, 신촌마을 부근 ■ 인근까지 차량통행 가능 ■ 시세 3천만원 ■ 매매 - 1500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북초 인근 ■ 시세 1천만원 ■ 매매 - 330만원 ■ 급매 (9월 5일까지)
장성, 전원주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나주, 근린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 좋음 ■ 매매 - 5200만원 	구례, 호텔급 모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4층 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 내, 객실 58개 ■ 시세 / 감정 15억, 리모델링 계획중 ■ 매매 - 8억 3천만원 	월산동, 광전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베란다 있음 ■ 2013년도 신축, 전망 좋음 ■ 시세 1억 2천만원 ■ 매매 - 9700만원 	장성, 서삼면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 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8000만원,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66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